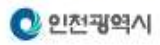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8일(월) 총 4매		
담당부서	협치인권담당관	담당자	• 주민자치팀장 오택영 ☎440-4111 • 담당자 한윤덕 ☎440-411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시민이 시장 되는, 인천형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

-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, 운영비 및 참여예산 등 다양한 자치역량 활동 지원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를 ‘시민이 시장 되는, 인천형 주민자치’ 본격 실현의 한해로 삼아 각종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‘주민주권’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수요 응답형 실행 예산을 확대하는 등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- 첫째로, 주민자치회 핵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활동비가 지원된다.
 -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32개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매달 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,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참여 동기 부여 등을 통하여 실행력을 갖춘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둘째,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,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(50억원)을 주민자치회(100개소)에 확대·지원한다.
 -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 추진되며, 주민자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치역량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 - 특히, 주민들이 모여 숙의 공론화 하는 등 협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자율성과 추진 모델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- 셋째, 주민자치회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한다.
 -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회의비, 교육비, 홍보비 등 운영비가 132개 주민자치회에 개소 당 600만원이 지원되며, 특히,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해 각 분과별 회의, 총회 개최 비용 등 필요 운영비 또한 1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.
 - 특히, 주민자치위원 등의 맞춤형 교육, 주민자치 활동 전문가 컨설팅, 분과회의, 자체 소규모 역량 강화 교육, 지역주민과의 사업 발굴 간담회 등 주민자치회의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리플릿, 포스터,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하고, 각종 SNS 영상 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,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우수역량을 갖춘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적극 영입하는데 활용 된다.
- 넷째,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개선하여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된다.
 - 주민자치센터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리모델링 및 재배치를 통하여

주민자치회 각종 분과위원회 활동, 소규모 현안모임 등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회의 및 만남의 공간 26개소 조성에 6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.

-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올해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, 실질적인 인천형 주민자치가 뿌리 내리는 한해로 시민이 시장이 되는 인천형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2020년도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현장사진

참고

2020년도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현장사진

〈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〉



〈마을자치 활동가 양성〉

